

#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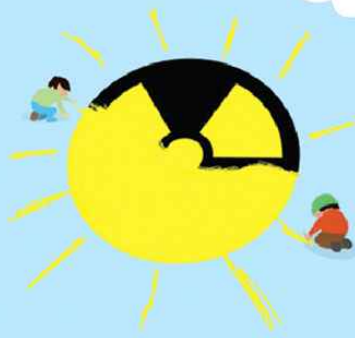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게	1644-9047
대게직거래장터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박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키캐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 한국 언론도 비정상이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주진우 기자가 월요일 이 시간에 나와서요, 최순실이 록히드마틴 좋으라고 100조 이상의 무기도입 사업에 다리를 놓아줬다, 당연히 엄청난 액수의 커미션을 받았을 것이고, 이에 최순실은 사드 배치로 화답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허투루 보도할 사람은 아니지요. 그랬다면 진짜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가 안 됩니다.

박근혜의 마약 복용설은, 아니 톤 다운해서 박근혜의 약물 중독설은 낭설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 증거가 광범위하게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이 마약을 한다? 약물 중독 상태? 탄핵 심판에서 이긴들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뉴스가 안 됩니다.

보도했을 때에 역풍, 파장이 염려돼서 아닐까요? '다이빙벨'의 진실이 어제 tbs TV를 통해 방영됐습니다. 이종인 알파잠수공사 사장을 어떻게 언론과 권력이 사기꾼으로 매도했는지 그 전말이 다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를 영상으로 고발한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기자 역시 엄청난 비방 모락을 당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면 뭐가 문제인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언론 현실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했을 때에 돌아올 엄청난 역습에 쫓아 있습니다. 지금도요. 18대 대통령선거 부정개표 의혹, 한 줄도 보도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도 이 맥락 속에 있습니다. 3년 11개월여가 지났지만 변론 기일조차 열고 있지 않는 법원, 수상하지 않습니까? 병든 언론의 실상, 이 실상을 알고 뉴스를 보고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 12월 14일(수) 1부 | 마친 박근혜, 세월호 수색중에도 미용시술

[오프닝] 박근혜도 비정상·한국 언론도 비정상이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세월호 수색 한창때 박근혜는 미용시술 흔적
- 박근혜 1차 사과담화 때도 '최순실 옷' 입었다
- "김기춘 '정윤희 문건' 대통령에 보고 않고 3인방에 건네"
- 이영복, 현기환 술값 대납 당시 우병우 묵인 의혹
- 막나가는 친박... 비주류 쫓아내려 당 윤리위 장악 시도
-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정동영 2파전 가다
- [뉴스듣기능력평가] 박근혜, 길라임 또다른 네티네임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트럼프, 국무장관에 '푸틴 절친' 탈러스 지명 논란
- 트럼프, '외교안보라인' 완성...강경파파 反중국 기조
-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 탄핵 이후에 도리어 더 강해진 자본의 탐욕
- 한상균은 3년형, 진경준은 4년형 이게 최선인가?
- [공화국 논평] '탈당 스탠바이' 김무성에 대한 조치

이게 박근혜다

**한국일보** 세월호 수색 때,朴 미용 의혹

2014년 5월 13일 대통령 박근혜는 국무회의 주재로 나흘만에 공식일정을 가졌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의 얼굴에선 피멍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오른쪽 입가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였다. 한국일보는 성형외과 및 피부과 전문의들에게 사진 속 피멍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의사들은 “주름을 펴기 위한 필러 주입술의 후유증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필러 시술은 통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수면 상태로 시술을 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5월 8일 유가족들은 박근혜와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밤을 샜다. 하지만 사흘 동안의 공식일정을 비우고 16일야 박근혜는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을 했다. 또한 다시 사흘 뒤엔 대국민 담화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 “박근혜 얼굴은 뽀뽀 성형 백화점”

대통령 박근혜의 얼굴에 나타난 미용시술 흔적을 바탕으로 회당 시술 비용을 추정해봤다. 얼굴 전체 주름제거 보톡스 30만 원, 눈가 성형 350만 원, 피부 관리 75만 원, 입가 주변 필러 130만 원, 팔자 주름 교정 300만 원 등 회당 합계 9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나 재료에 따라 비용은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그 돈, 니 돈으로 했니?

**SBS** 길라임에 이어 ‘최보정’으로 성형?

최순실은 김영재 성형의원에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0여 차례나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썼다. 그런데 최보정의 진료 기록상 생년월일이, 1956년 2월 2일생이라는 사실을 확인됐다. 대통령 박근혜의 생년월일이 2월 2일이다. 56년생인 최순실과 2월 2일생인 박근혜를 합쳐 최보정이란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근혜가 최보정이란 가명으로 성형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최보정이라, 영어로 뽀샵 최가 되려나?

**한겨레** 1차 담화 때도 ‘최순실 옷’ 입어

전직 최순실 의상실 디자이너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 때도 대통령 박근혜는 최순실이 만든 옷을 입었다고 한다. 해당 옷은 지난 달까지 최순실 의상실에서 일했던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TV** “탄핵 사유 전혀 인정 안 해”

국회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로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근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모레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어느 범죄사실 하나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가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만의 세상

**세계일보** “김기춘, 3인방과 게임이 안 돼”

세계일보가 2014년 이른바 ‘정윤희 문건’을 보도하면서 조용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가졌던 인터뷰를 공개했다. 조용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고리 3인방과 게임이 안 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윤희가 박지만을 미행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건을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고하지 않고 문고리 3인방이나 정윤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니 안봉근이 ‘김기춘이’, 이랬던 것.

**東亞日報** 우병우, 변호사 때도 검찰 군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검찰 내사 단계에 있던 사건을 최소 3건 수임한 것이 확인됐다. 통상 내사는 수사기관이 최대한 은밀하게 범죄 혐의 추적을 시작하는 단계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보안이 유지되며 내사 사건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검찰에서도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다. 우병우가 변호사로 재직 당시 어떤 경위로 내사 사건을 수임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 경향신문 이영복, 현기환 수천만 술값 대납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와대 회장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술값 25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기환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영복 회장으로 부터 1억 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올해 초 사정 기관들로부터 이러한 비위 첩보를 보고 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올해 초, 민정수석은 우병우다.

## 한겨레 정유라에 3억 원 엉터리 대출

하나은행은 정유라에게 3억 원대 특혜 대출을 해준 의혹을 사고 있다. 정유라는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를 고용주로 해서 고용계약서를 하나은행에 제출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추가로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추가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계약서 상 사실관계도 엉터리다.

### 새누리 분당 초읽기

## 국민일보 막 나가는 친박, 윤리위 장악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윤리위에 친박 인사 8명을 충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사실을 윤리위에 알리지 않았다. 비밀리에 윤리위 장악을 시도한 셈이다. 비박 쫓아내고 징계대상이 된 박근혜 당원 구할 목적이다. 이진곤 윤리위원장 반발하고는 사퇴했다.

### 새누리당 뭇 법사위원장!

## 경향신문 탄핵 시기, 권성동에게 달려

차기 대선의 핵심 변수로 새누리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목되고 있다. 그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추위원이 선고 시기를 당기는 방법은 탄핵사유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반면 소추위원이 선고 시점을 늦출 수도 있다. 법원 판결이나 특검 수사 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거나, 대통령 박근혜가 증인을 마구잡이로 신청해도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권성동이 다행히 비박이니 망정이지, 김진태라도 됐으면. 원구성 협상 엉망으로 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원망스럽다.

### 국민의당 전당대회

## 국민일보 당 대표, 박지원-정동영 양강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표직을 놓고 정동영 의원과 박지원 원내대표의 양강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우세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 사법 개혁의 필요성

## 朝鮮日報 ‘진경준 126억 주식’ 무죄라니

진경준 전 검사장은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6억 원의 대박을 터뜨렸다. 또한 제네시스 차량과 렌트비, 여행 경비 등으로 1억여 원을 받았다. 김정주 넥슨 대표는 재판에서 진경준이 검사이고 나중에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벗이라며 주고받은 금품을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CM송 같은 사이라는 이야기다.

### 오늘의 칼럼

## 중앙일보 “대통령의 하룻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이상언 중앙일보 사회2부장의 “대통령의 하룻밤”이다.

“2013년 11월 5일에 들은 이야기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 국민방문 중이었고, 나는 런던 특파원이었다. 런던 주재 한국 공무원은 믿기 어려운 말을 했다. 대통령이 투숙할 호텔 객실의 침대 매트리스를 청와대 주문에 맞춰 새것으로 바꿨다는 것이었다. 호텔은 ‘자기네 것에 불만이 있다고 여겨 다소 불쾌해하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상황 설명을 하자면 박 대통령은 이 호텔에서 하룻밤만 지내면 됐다.



그 공무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투숙할 방에는 전자레인지가 설치됐다. 호텔 음식이 아닌 별도로 마련한 음식을 아침 식사로 준비하기 위한 용도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서울에서 가져온 것으로 육식 샐러드도 바꿨다고 했다. 손잡이 부분을 눌러야 물이 나오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1박 동안 한 두 번만 쓸 것이었다.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은 객실에 조명등 두 개와 스크린 형태의 장막을 설치했다는 대목이었다.

‘대통령이 머리 손질과 화장을 하는 곳은 대낮처럼 밝아야 하며, 대통령이 거울 보는 곳의 뒤편에 흰 장막을 쳐 거울 속에 대통령의 모습이 비칠 때 다른 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그가 설명했다. 대통령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박근혜의 변기 이야기하고 연관 지어 생각하면 되겠다. 그녀가 감옥 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고 싶다.

